도의회 의장 입지자 행보 '도마'

끼리끼리 '클린선언' … 현 의장단 동행 표밭갈이
과열 우려 속 70% 장악 초선의원 움직임 '변수'

오는 7월 개원하는 제11대 전남도의회 의장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의장직에 뜻을 둔 다선 의원들의 행보를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2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11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의장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3명의 의원이 최근 클린선거를 다짐했다.

3선의 이용재·이장석 의원과 재선인 김기태 의원 등이 회동을 갖고 '의장선거 공명실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것.

이들은 "상대후보에 대한 비난과 흑색선전을 자제하고,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들의 '이례적' 회동과 선언을 두고 의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70% 이상이 초선으로 재편된 도의회가 아직 개원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3명의 의원들이 사실상 다른 후보들의 입지를 막는 모양새가 된 탓이다.

11대 도의회는 전체 58명 중 초선이 41명(74%)에 이른다. 재선은 12명, 3선 5명으로 의장 선거전에 키를 초선의원들이 쥐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초선의원들을 배제한 채 다선 의원이라는 명분으로 의장선거 입후보에 쐐기를 박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의장 입지자 중 일부가 임기가 아직 남은 현 10대 의장단과 함께 지방선거 전부터 일찌감치 선거전을 펼쳐 온데다 민주당 지역위원장의 입김 등도 감지되면서 클린선거 선언과 다른 과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물밑에서 상임위원장 등 특정 입지자의 라인업이 이미 짜였다는 이야기마저 돌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초선의원은 "아직 개원도 하지 않고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다선 의원들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클린선언에 참여한 한 의원은 "후보등록도 하지 않아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클린선언에 참여하지 않으면 마치 깨끗한 선거에 동참하지 않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어 참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8대 의장선거를 앞둔 광주시의회는 3명의 재선의원에 1명의 초선의원이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다선 의원들을 제치고 초선 의원들이 뭉쳐 의장단을 장악한 전례가 있다.

/정근산 기자

악수하는 장병완-노회찬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정의당의 20대 국회 3기 원내대표로 선출된 노회찬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당권주자 물밑행보… '친문 교통정리' 주목

일부 주자들, 사무실 개소·조직 다지기에 출판기념회도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두 달여 앞둔 21일 당권에 도전하는 주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오는 2020년 21대 총선의 공천권을 쥐는 당대표 경쟁에 20명 가까운 후보군이 형성된 상황이지만, 전당대회 '룰'이 정해지고 친문(친문재인)진영 내 '교통정리'가 이뤄지면 후보군이 압축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일단 친문 주자들의 출격 여부와 교통정리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특히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출신인 이해찬(7선) 의원의 당대표 도전 여부가 관심거리다.

이 의원이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출마준비에 들어갔다는 말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4선의 김진표 의원과 '문심'을 내세워 6·13 서울 송파을 재선거에서 승리하며 국회에 재입성한 최재성(4선) 의원, 친문 핵심으로 거론되는 전해철(재선) 의원도 후보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친문 그룹'으로 묶여 지지층이 겹치는 만큼 3명 모두 전대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대표 적합도 1위를 차지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마설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김 장관 측 관계자는 "장관직을 수행하는 만큼 지금 출마·불출마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3선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영선(4선) 의원과 우원식(3선) 의원은 당 안팎의 권유 속에 당대표 출마 여주를 고민하고 있다. 이석현(6선) 의원과 송영길·안민석(4선), 우상호·윤호중·이인영(3선) 의원, 신경민(재선) 의원 등도 거론된다.

당권도전을 일찌감치 결정한 후보들도 꽤 있다.

5선의 이종걸 의원은 2년 전 패배를 뒤로 하고 당권 재도전에 나선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 사무실을 열었고 지역별로 특보를 임명하고 있다"며 "캐치프레이즈는 '업그레이드 코리아'(UK)로 고민 중인데 평화체제 정착기에 유쾌한 정치를 하는 정당을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다.

4선의 설훈 의원도 선거사무실 준비와 동시에 조직을 열심히 다져 나가고 있고, 재선의 박범계 의원도 '돌풍'을 확신하며 당권도전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선의 김두관 의원은 선거캠프를 꾸리는데 한창인 가운데 7월 중으로 출판기념회도 계획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 나서야"

장휘국·장석웅 시·도교육감 당선인 '성명서'

장휘국

장석웅

청와대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장휘국·장석웅 광주시·전남도 교육감 당선인이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촉구했다.

장 시교육감 당선인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회복은 노조할 권리라는 가장 기본권적인 권리를 회복함으로써 노동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다"며 "조속히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해 교육혁신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 당선인은 특히 "전교조의 법외노조 상태로 인해 교직사회가 혼란 속에 빠져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과제를 완수할 책무를 함께 지고 있으며, 이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결단만이 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석웅 도교육감 당선인도 성명을 내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장 당선인은"주민 직선 3기를 시작하는 교육감으로서 국민 모두의 요구인 교육혁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학교혁신과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도 교원단체의 안정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당선인은 "직선 3기 교육감의 출발이 모두의 응원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혁신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도록 정부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황애란 기자

"더 낮은 자세로 더 큰 일꾼 되겠다"

비례대표서 지역구 의원 생환 '재선 성공'
교육환경 개선·농어촌 재생사업 등 중점

광역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 이혜자 전남도의원 당선인

"더 낮은 자세와 새로운 각오로 더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혜자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 당선인은 비례대표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생환, 재선 배지를 달았다.

오는 7월 개원하는 제11대 전남도의회에서 '유이'한 여성 재선인 이 당선인은 "많이 부족했지만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노력을 믿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비례대표로 4년간 쌓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 당선인은 "지난 4년 동안 지역을 발로 뛰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됐다"며 "무안의 미래를 위해 지역민의 바람을 아는 도의원으로 지역현안들을 실현 가능한 현실로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선거기간 약속했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통한 서남권 거점공항 도약 ▲무안 특산물인 양파·마늘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교육환경 개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어촌 재생사업 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 당선인은 또 "도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의원과 군수·군의원 등과 협업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탄탄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지역의 부족한 재원확보와 올바른 도정의 길잡이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당선인은 "도의원 첫 4년간 교육과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부족한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며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지역민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 줄 수 있는 지역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민 여러분들의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도의원이 되도록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더 새로운 각오로 더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 당선인은 지난 2014년 제10대 전남도의회 비례대표로 입성해 여성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대표발의 14건, 공동발의 121건 등 총 135건의 조례를 제정하는 등 뛰어난 의정활동으로 호평받고 있다.

/정근산 기자